"가톨릭의 심장… 한국도 깊은 슬픔"

천주교, 노트르담 화재 위로
형제적 친교와 연대 약속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와 관련, 프랑스 파리대교구를 위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프랑스 파리대교구장 미셸 크리스티앙 알랭 오프티 대주교님께'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16일 전달했다.

김 대주교는 "2019년 4월15일 프랑스 파리대교구의 노트르담 주교좌성당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에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도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국의 모든 주교님들을 대신해 그분들과 함께, 저는 프랑스 국민들과 가톨릭 신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심장이자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주교좌성당이 온전히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간절히 청한다. 이러한 슬픔의 때에, 우리의 형제적 친교와 연대를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15일(현지시간) 화재로 인해 노트르담 대성당 지붕과 첨탑이 붕괴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부활절을 앞둔 기독교 성주간이어서, 프랑스 국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크다. 성당 내부의 예술품은 일부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나 여전히 추가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가톨릭의 상징으로 통한다. 파리교구장인 주교가 미사를 집전하는 주교좌성당이다.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미사를 집전하는 서울의 명동대성당과 같은 곳이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등 국가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중앙 첨탑이 15일(현지시간) 불길에 휩싸여 옆으로 쓰러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불이 나 주변 시민들이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文대통령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참담… 우리 모두의 상실"

문재인 대통령이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프랑스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노트르담 대성당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보물 중 하나다. 우리 모두의 상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참담하지만 누구보다 프랑스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이라며 "함께 위로하며 복원해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류애는 더 성숙하게 발휘될 것"이라며 "프랑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박애의 정신은 화재에 결코 꺾이지 않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15일 오후 6시50분(현지시간)께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서 큰 불이 나 지붕과 첨탑이 붕괴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화재 발생 직후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트위터에 "우리의 일부가 불타는 것 같아 슬프다"고 참담한 심경을 표현했다.

/뉴시스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만나는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둘레가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을 오는 30일 연지아트홀에서 진행한다.

공연은 오정해의 농담 작(作)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로 '화작(花作)'이라는 부제로 진행된다.

꽃(花)과 관련된 이야기, 공연과 함께 음(音)이 같은 불(火)에 관한 이야기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된 특별 게스트가 출연해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이다. 공연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만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시작(詩作)'이란 부제로 공연이 열렸다.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인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가 진행을 맡고 시인 신달자와 가수 양희은이 비밀 게스트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시인 신달자는 프로그램에서 시를 읊고 본인의 생애를 진솔하게 이야기해 관객의 공감대를 얻으며 많은 감동을 줬다. 가수 양희은 또한 평소 방송에서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모습과 노래로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사단법인 둘레 안수용 이사장은 "사단법인 둘레는 '사랑으로 행복한 시민, 공감문화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더 나은 문화생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의 티켓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작은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국립태권도박물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소전시회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국립태권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태권도 문화 콘텐츠의 저변 확대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19 다시 보는 박물관 소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4월 16일부터 '10인 10색, 태권도를 만나다'와 '우표로 보는 태권도', '포스터·페넌트로 만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3가지를 주제로 태권도 관련 갤리그래피 작품과 기념우표, 포스터·페넌트를 박물관 로비에서 전시한다.

먼저 '10인 10색, 태권도를 만나다'는 4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지태, 십진, 천권, 한수, 일여 등 태권도 품새 이름을 주제로 10명의 서예 작가들이 창작한 캘리그래피 작품 30여 점을 소개한다.

이어서 '우표로 보는 태권도'는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태권도 관련 국내·외 수집 우표와 올림픽 기념우표 등을 전시할 계획이다. '포스터·페넌트로 만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9월 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역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공식 포스터 및 페넌트 등 박물관 소장 자료를 전시한다.

박물관 서봉준 관장은 "이번 전시는 기존에 진행했던 특별 전시 중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소장 자료를 다시 만나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라며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박물관에서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